



제3장

남북경제협력

- 제1절 남북교역
- 제2절 개성공단사업
- 제3절 남북간 수송체계
- 제4절 남북관광협력
- 제5절 경공업 · 지하자원 협력
- 제6절 기타 남북경협

제3장

남북경제협력

2007년 남북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국면 진입과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내외 환경개선에 힘입어 확대·발전하였다. 남북교역은 2006년 대비 33.2% 증가한 1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주)대우 남포공단이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협력사업 승인은 2004년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총 176건에 달했다.

연도별 경험 사업자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단위 : 건 수)

구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협력사업	1	5	9	1	2	5	2	2	26	32	23	176	284
협력사업자	11	16	13	2	1	6	3	4	28	29	24	176	313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에 따라 남북간 인적왕래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56.5% 증가한 16만명에 육박했다.

연도별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계	6,297	5,661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434,663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개성공단은 2003년 1단계(330만㎡)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7년 말 현재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총 65개 기업(아파트 형공장 입주 소규모기업 29개 포함)이 가동 중이고 북한측 근로자 22,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7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1억 8,477만 달러에 이르렀다.

금강산 관광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2007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 2007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70만명을 넘어섰다.

남북연결 철도는 2005년 12월 궤도부설공사가 완료되고 2007년 5월 17일 시험운행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개시되어 남북간 열차의 정기운행이 실현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구간

구분		남측 구간	북측 구간	총 연결구간
경의선	철도	문산-임진강-도라산-군사분계선(12km)	개성-손하-판문-군사분계선(15.3km)	27,3km
	도로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5.1km)	개성 - 군사분계선(7km)	12,1km
동해선	철도	제진 - 군사분계선(7km)	금강산-삼일포-감호-군사분계선(18.5km)	25,5km
	도로	송현리 - 군사분계선(4.2km)	북고성 - 군사분계선(20km)	24,2km

또한 2007년에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됨으로써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에 약 7,000만 달러(전체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북한측은 2007년도에 지불해야 할 대가로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지하자원을 아연괴 1,000톤으로 상환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가동, 남북경제협력협 의사무소 활성화, 육로출입시설 확충 및 통행체계 개선 등을 통해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합의·추진하기로 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이 그것이다.

제1절 남북교역

1. 교역일반

가. 교역규모

2007년 남북교역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수요, 6자회담 합의 이행의 대내외적 화해 분위기 속에서 2006년 대비 33.2% 증가한 17억 9,789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품 반입증가 및 북한산 농수산물·광산물 반입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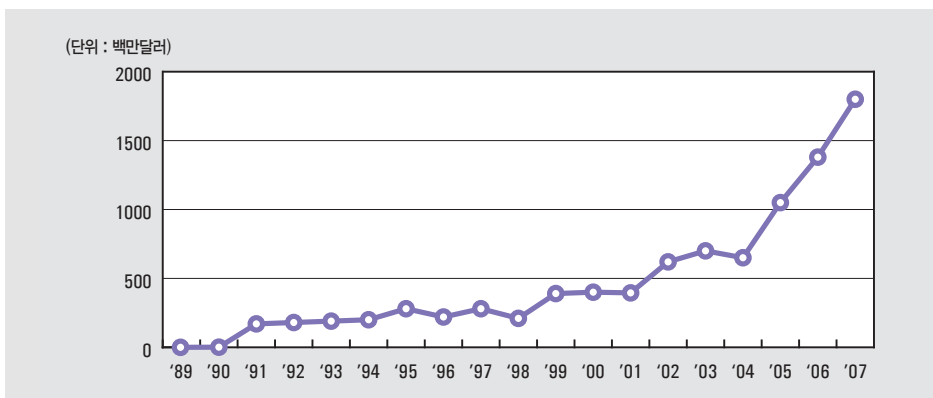
교역규모를 반입·반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입은 7억 6,53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3% 증가했고 반출은 10억 3,255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 증가하였다.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4,957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4,238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9,195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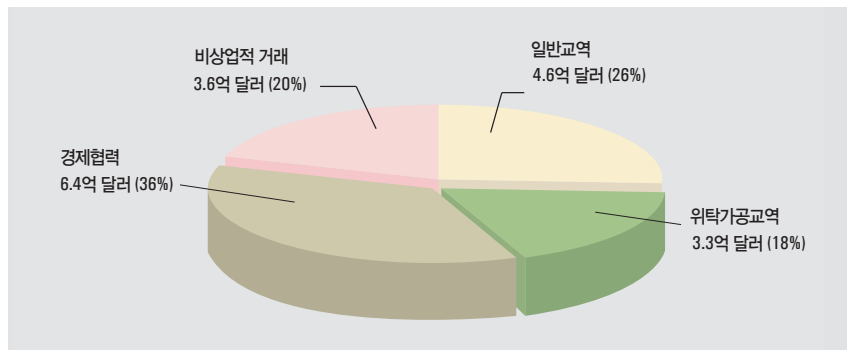
나. 유형별 교역현황

2007년도 상업적 거래는 미화 14억 3,117만 달러로 전년대비 54.2%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79.6%를 차지하였다. 이 중 반입은 미화 7억 6,529만 달러로 전년대비 47.6% 증가하였고, 반출도 미화 6억 6,588만 달러로 전년대비 62.5%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일반교역은 4억 6,14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7%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도 3억 2,991만 달러로 전년대비 30.4% 증가하였다. 개성공단은 4억 4,067만 달러로 47.5%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타 경제협력은 1,191만 달러로 전년대비 23.3%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3억 6,672만 달러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20.4%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은 93만 달러로 전년대비 61.4% 감소하였고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3억 2,89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6% 감소하였다.

2007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



다. 교역수지

2007년 남북간 교역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경제협력사업 및 대북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부문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부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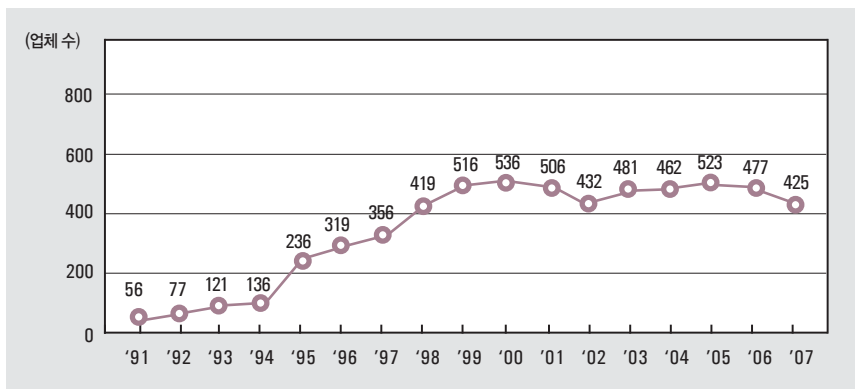
서의 실질교역 수지는 5억 달러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7억 1,805만 달러 흑자인 반면 누적 실질수지는 28억 8,500만 달러 적자이다. 이와 같은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실질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교역구조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섬유류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5년 10월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가 개소되어 남북 교역 기업에 각종 투자 알선, 관련 정보제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남북 간 직접교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의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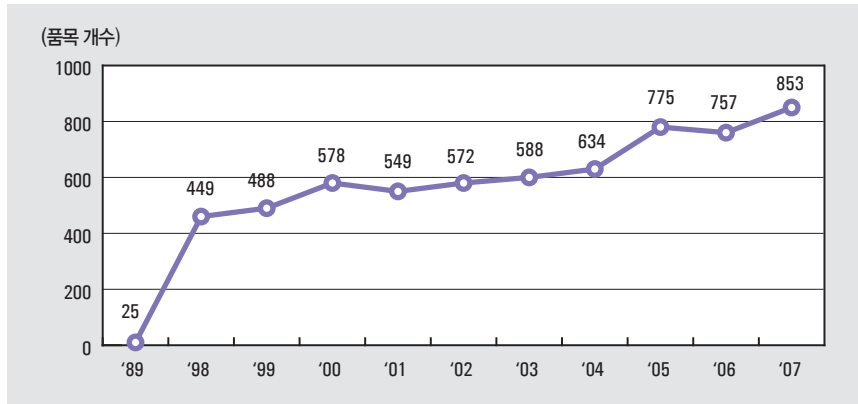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4년 634개, 2006년 757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7년의 경우 전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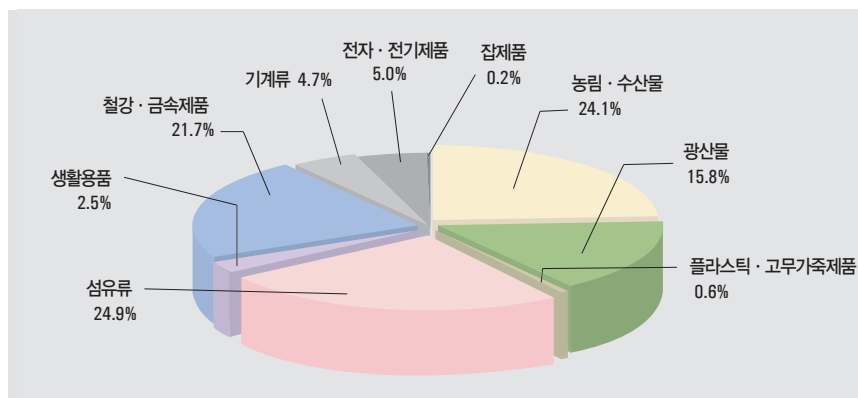
비 13% 증가한 853개로, 이 중 개성공단 657개, 일반교역 293개, 위탁가공교역 166개 품목이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2007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4.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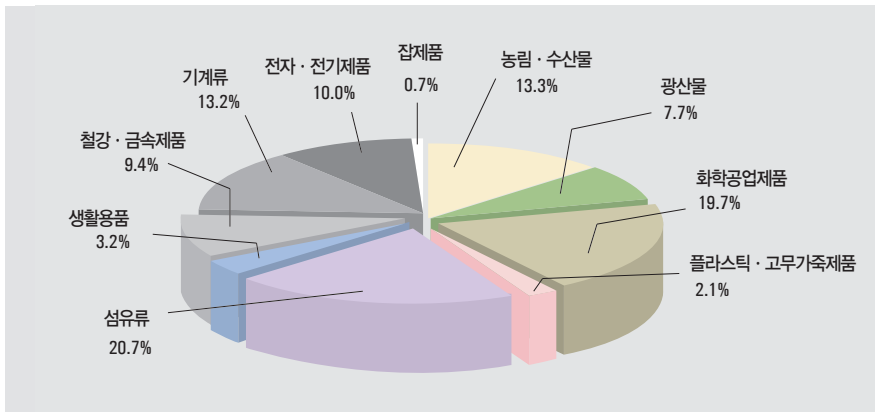
반입품목 구성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

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원부자재)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식량·비료 등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식물 등 섬유류(20.7%),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19.7%), 쌀 등 농림수산물(13.3%), 건설 중장비 등 기계류(13.2%) 순이다.

반출품목 구성비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의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금을 지급하는 교역형태이다. 2007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3억 2,991만 달러로 전년대비 30.4%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깐마늘 등 농림수산물, TV·라디오카세트 등 전기·전자제품과 휴대용 라이터 등 일부 생활용품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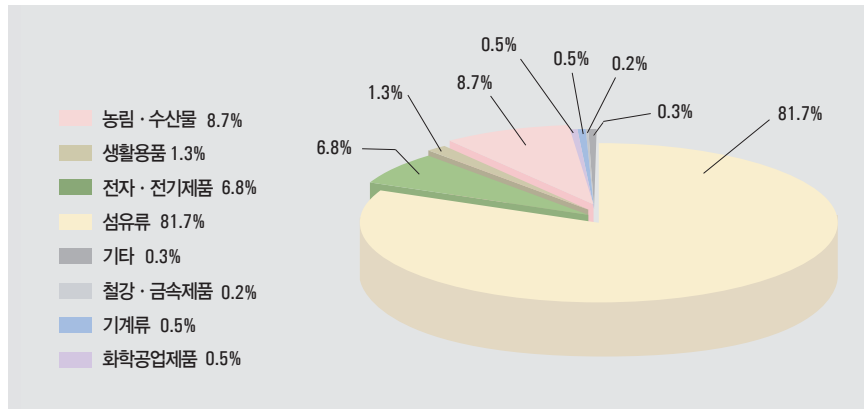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2000년 157개에서 2007년 89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역에 대한 관심 증대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했지만, 영세 교역업체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고 위탁가공교역 시장이 경쟁원리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업체가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단위 : 개〉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248	166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123	89

위탁가공 구성비



제2절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공되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완료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은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

일 1천여 명의 인원과 6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6월 착공된 이후 약 5년여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6년 10월 말까지 26개 기업이 모두 가동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등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건축·가동이 본격화 되고 국내 입주 희망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단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8월 1차로 16만 9천㎡의 용지에 총 23개 업체와 1개 기관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 말 실시된 1단계 2차 분양은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공사도 2007년 10월까지 모두 완료되어 2007년 10월 16일에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 기반시설은 2007년 10월까지 모두 완공되었다. 전력은 10만kW 용량의 송변전 시설인 「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5월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송전 방식의 전력 공급을 시작하였다. 통신은 2005년 12월 303회선을 개통한 이래 2007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653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기업 29개를 포함하여 총 65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2억 7,342만 달러에 달하고, 총 수출액은 약 6,036만 달러로 누적 생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생산액은 2005년 1,490만 달러, 2006년 7,373만 달러, 2007년 1억 8,477만 달러로,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생산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총계
생산액	14,906	73,737	184,779	273,422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수출 실적은 2005년 86만 달러, 2006년 1,982만 달러, 2007년 3,966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 누계액은 6,036만 달러이다.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총계
생산액	866	19,825	39,669	60,360

개성공단 분야별 추진 일지

구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 현대-토공-북측간 개성공단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계약 체결	'04.4.13
	○ 토공, 시범단지 9만 3천㎡ 분양 공고	'04.5.18
	○ 토공,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 공고	'05.8.1
	○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5.12.28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06.5.31
	○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06.12.21
	○ 토공,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07.4.30
북한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02.11.20
	○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4.-'06.11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1.22
	○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 건물 개소	'06.5.22
남북 당국간 합의	○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02.12.8 ('05.8.1 발효)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03.8.20
	○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04.1.29 ('05.8.1 발효)
	○ 양 정상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합의	'07.10.4

구분	추진 내용	일자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o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04.4.23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23개 기업 및 1개 기관)	'04.6.14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o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04.10.20
	o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04.12.15
	o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6.3
	o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5
	o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가동	'06.10.31
	o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06.11.21
	o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07.1.30
	o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07.4.30
	o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5.25
	o 총생산액 2억달러 달성	'07.9.30
	o 북한 근로자 2만명 고용	'07.11.5
	o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 조사 착수	'07.12.17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07.12.31

1. 1단계(330만㎡) 개발 완료

가. 기반시설 준공

(1) 내부 기반시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에는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특수시설물) 등 내부 기반시설과 전력·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이 있다.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



개성공단 1단계 전경(2007년 10월)

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내 시설 공사는 2007년 6월에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2007년 10월까지의 용수, 환경기초시설, 전력·통신 등 개성공단 1단계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10월 16일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우리측 관계자 255명과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 북한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2007년 10월에 완공된 개성공단 정·배수장은 개성공단 북쪽 약 17.8km 지점에 위치한 월고저수지로부터 원수를 취수하여 하루 6만톤(개성시 공급분 1만 5,000톤 포함)의 용수를 입주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은 1단계 지역 26,446㎡ 부지에 하루 3만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규모로 2005년 4월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루 1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폐수처리시설이 2007년 6월에 완공되었으며, 2단계 1만 5,000톤 처리 시설이 2009년 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단계 지역 5만㎡ 부지에 매립용량 20.4만㎥, 소각시설 하루 62톤 규모(12톤 1기, 50톤 1기)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6.1만㎡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 2005년 12월에 착공되어 2007년 6월에 완공되었다. 1일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도 2007년 8월에 착공되어 200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도 분양 기업들의 입주 추이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2) 외부 기반시설

2004년 12월 3일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1만 5,000kW 용량의 배전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본단지에 대한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인 「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 12월 21일 남북간 송전선로를 연결하였다. 2007년 5월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송전방식의 전력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 6월 21일 「평화변전소」 준공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2004년 12월 KT와 북한측 조선체신회사 간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및 2005년 3월의 「통신공급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는 2005년 7월 18일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간 광케이블을 연결하였다. KT는 이어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한 재수출허가를 획득하고 2005년 12월 28일 303회선을 개통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존의 금강산 통신과 같은 제3국 경유 방식이 아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KT는 회선 용량 부족에 따라 2007년 7월에 350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2007년 말 현재 653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본단지에 대한 원활한 통신 공급을 위해 2008년까지 9,917.4㎡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하여,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포함한 1만회선 규모의 통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입주기업 가동 확대 및 분양 완료

2005년 8월 본단지 1차 16만 9천㎡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어 총 23개 업체

및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선정되었다.

본단지 1차 분양에 이어 2006년 2차 분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양이 착수되지 못하다가, 2007년 4월 말에 본단지 2차 분양이 공고되었다.

2차 분양에서는 일반공장 용지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선도기업 유치용지,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협동화단지, 영세기업에 유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용지, 개성공단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를 위한 외국기업유치용지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의복, 가죽·가방·신발,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등 6개 군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2차 분양에서는 183개 업체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봉제·의복이 53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이 30개 업체로 뒤를 이었다. 가죽·가방·신발이 15개 업체, 화학·고무·플라스틱이 15개 업체, 기타 제조업이 42개 업체, 전기·전자 17개 업체, 복합 업종이 11개 업체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유치용지의 경우, 6필지 중 3필지(중국계 기업 2, 독일계 기업 1)가 매각되었다.

2007년에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에 힘입어 가동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시범단지 26개 기업과 본단지에 입주한 39개 기업 등 65개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가동 중인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아파트형 공장(29개사)을 제외한 36개 업체의 총 투자액은 1,889억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5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 업체당 평균 투자액은 화학업종이 1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 80억, 전기·전자 54억, 기계·금속 20억원 순이었다.

입주기업 투자액

(단위: 억원)

업종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업체수	12개사	2개사	17개사	5개사	36개사
총투자금액	963	324	332	270	1,889
업체평균투자액	80	162	20	54	52

- 주: 1. 투자금액은 2007년말 기준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2. 투자액=토지+건물+기계설비
 3. 업체당 평균투자액=투자금액/업체수
 4. 업체수 : 토지를 분양받은 36개사 기준(65개 가동기업중 아파트형 공장 29개사 제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7.3%로 국내 제조업 평균인 83.7%보다 6.4% 낮으나, 국내 중소기업 평균인 70.0%보다 7.3%가 높다. 특히 1년 이상 가동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82.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업종 분류

(2007.12.31 기준)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65	41	2	17	5
시 범 단 지	26	(주)삼덕스타필드 (주)신원에벤에셀 문창기업(주)개성	(주)태성하타 (주)지에스	(주)로만손 개성공장 (주)로잔 개성공장 (주)현진 개성공장 (주)엔·아트 동일정공(주) 대선테크(주) (주)픽시스 (주)에버존 아라모드사계(주) 개성공장 (주)개성대화 소노코쿠진웨어(주) 개성신영(주) (주)조민 P&P (주)대건산업 (주)호산에이스 (주)티에스피	개성부천공업(주) 솔루텍지에스(주) (주)제씨콤 개성 공장 (주)개성마이크로 (주)용인이엔티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본단지 1 차	10	성화개성(주) (주)좋은사람들 개성1공장 (주)진글라이더 개성코튼클럽(주) (주)평안 개성공장 (주)개성제일상품 (주)평화제화 (주)만선개성 (주)개성아트랑		케이엠에프개성	
본단지 1차 (아파트형 공장)	29	(주)에버그린 (주)개성스킨넷 개성팀스포츠 (주)나인모드 가드뱅크 (주)엘고개성 (주)아이에스레포츠 (주)개성자수 제이패션 (주)아진개성 (주)개성쉬크베베 (주)진성산업 (주)드림에프개성 (주)동우 (주)개성창대어패럴 개성신한물산(주) (주)와이에스개성 (주)개성금담 (주)에스앤티스포츠개성 (주)신한모드개성 (주)광일 (주)개성성림 웅피 (주)신즈개성 청송 뷔에세 (주)새서울자수 (주)에이치디글로벌 (주)국제실크유통개성			

개성공단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누적 총생산액도 2007년 1월 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8개월만인 2007년도 9월 말에 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7년 12월 말 현재 6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억 8,477만 달러를 생산

하여 총생산액은 전년도보다 약 150%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8,554만 달러(207% 증가), 화학 1,826만 달러(67% 증가), 기계·금속 4,194만 달러(101% 증가), 전기·전자 3,902만 달러(173% 증가)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증가율)
섬유	6,780	27,793 (310%)	85,543(207%)
화학	1,768	10,900 (517%)	18,262(67%)
기계·금속	5,250	20,853 (297%)	41,947(101%)
전기·전자	1,108	14,191 (1,181%)	39,027(173%)
계	14,906	73,737 (395%)	184,779(150%)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007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약 100% 증가한 3,966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 1,034만 달러(107% 증가), 기계·금속 2,396만 달러(86% 증가), 전기·전자 536만 달러(168% 증가)로 나타났다.

업종별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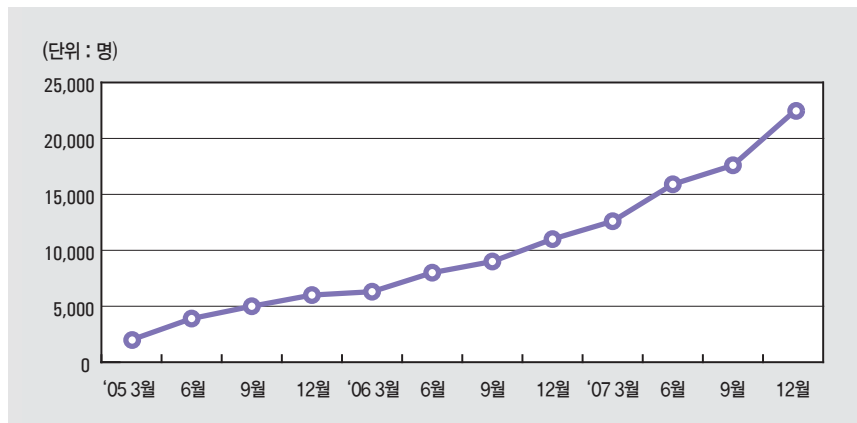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증가율)
화학	538	4,974 (825%)	10,342(107%)
기계·금속	328	12,855 (292%)	23,967(86%)
전기·전자	-	1,996 (-)	5,360(168%)
계	866	19,825 (2,189%)	39,669(100%)

북한 근로자의 고용은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현 소노코쿠진웨어(주))가 55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12월 말에는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가 모두 6,511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월평균 400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2006년 11월에 1만명을 돌파하였고, 2007년 11월 5일에 2만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2월 말 현재 북한 근로자 2만 2,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분기별 북한측 근로자 증가 추이(누계)



2007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은 평균 1,258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생산액은 신규 가동업체 및 기존 업체 신규 근로자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58달러(25.8%) 증가하였다.

2. 개성공단 지원 법·제도 정비

가. 남북 당국간 협의

본단지 1차, 2차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입주 가동기업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통행·통신·통관의 3통문제 개선, 북한 근로 인력의 안정적 충원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개성공단사업 추진사례가 남

북공동변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1단계 조기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장치들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서울),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07.12.20~21, 개성) 등 일련의 남북회담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단계 개발은 2008년 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2007년 12월 17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한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 도로 확충 및 통근열차 운행 문제도 합의하였다. 통행 시간을 확대하고, 전자출입체계(RFID)를 남북간 연계하여 출입업무와 출입심사를 전자처리하기로 하는 등 통행제도 개선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측의 통관 검사 방식을 선별검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통관 제도 개선조치에도 합의하였다. 통신은 2008년 내에 인터넷과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07.12.12~14, 판문점)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도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사업 진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향이 합의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법·제도 정비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7년 10월 말까지 총 16개의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2007년 말까지 「부동산 등록 준칙」 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7개의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업준칙과 일부 하위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북한측과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지원법의 기본 취지는 개성공단 투자자 및 근로자를 국내 공단에 준하여 지원·보호하자는 것이다. 지원법은 여야의 호응을 얻어 2007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25일 제정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원법 제정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국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개성공단에 설립된 현지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각종 기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채용된 우리측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어 국내에 준하는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요지

□ 공단개발 지원

- 국내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6조)

□ 현지기업 및 투자자 지원

- 남측 주민이 투자한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에게 국내기업 지원제도 적용(7조 내지 10조)
-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허용 및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주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 부여(11조, 16조)

□ 근로자 보호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 적용(13조)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 적용(15조)
-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남측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14조)

□ 공단개발사업 관련 각종 기관 등 정비

- 공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정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4조)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법인격을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 파견 및 자금·물품 등 지원 근거 마련(18조 및 20조)
- 민법상 사단법인인 지원협회를 공법법인 지원재단으로 변경(19조 및 부칙 2조)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05년부터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총 11회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시행세칙, 관리위원회 사업준칙 및 개성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현안문제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다. 사업 지원체계 강화

(1) 관리체계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현지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말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비서팀, 법무팀 등 5부 2팀의 체제를 갖추고 모두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부에는 5명의 북한측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확대한 것으로 관리위원회의 남측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지원재단 이사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상근이사가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지원재단은 동일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10월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은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9개 정부 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건설 지원, 협력사업 승인 및 조정, 기업 운영 관련 각종 제도 마련, 통행·통관 등 출입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및 판로 지원 등 당면 업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획 및 대책 수립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007년에는 범정부차원에서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주기업 지원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정책협의체 운영

개성공단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협의회,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개성공단포럼 등이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협의체이다.

개성공단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종 현안은 물론 중장기 발전과제를

을 협의하는 개성공단사업협의회가 2004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관리위원회와 사업지원단, 그리고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모두 41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통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 4개 부처와 관리위원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4개 민간 유관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에는 전체회의와 상시 실무협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시범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채널이다. 2004년 10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약 30여 차례 이루어졌다. 사업지원단은 입주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들은 북한측의 조치도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남북간 각종 회담을 통해 북한측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해 왔다.

개성공단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로 2004년 8월 발족되었다. 총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성공단포럼은 학계, 각종 연구소, 개발사업자, 관리위원회 등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으로, 정기 및 수시 정책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수립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7년 1월 개성공단포럼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개성공단발전연구회로 확대·개편되었으며 분야별로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3. 기업 투자 환경

가. 통행·통관

(1) 통행절차 간소화

1단계 시범단지와 본단지 입주기업 공장들의 생산가동이 확대되는 등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원과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이 보다 내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는 통행을 07시부터 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간 출입을 위해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당국간 출입 관련 통보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남북군사회담에서 통행 간소화를 위한 협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07년 12월 13일 체결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는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 통행시간을 늘리는 원칙에서 연간 통행시간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07.12.20~21, 개성)에서 개성공단 통행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종전 08시 30분부터 17시 40분까지이던 통행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평일에는 24시간 전에 인원 명단과 군사분계선 통과 날짜를 통보하고, 일요일에는 남북출입당국간 원활한 연락과 준비를 위해 48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며, 주요 명절과 기념일 등에 통행 시에는 남북이 상호 합의하여 편리하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휴일과 공휴

일을 포함하여 연간 80여 일간 중지되었던 개성공단의 연간 통행시간이 확대되었다.

통행·통관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 제도개선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RFID(전자출입체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우선 2007년 초부터 개성공단의 상시출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첩형태의 방문증을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방문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수속시 심사소요시간을 많이 단축하였다. 이러한 전자방문증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자동적인 출입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RFID 태그 인식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여 민원인 뿐 아니라 담당 세관업무 효율도 높였다.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간에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시행세칙」을 협의·확정하고,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전자출입체계를 2008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 출입심사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출입체계(RFID)가 북한측 지역에도 시행되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통행 편의성은 홍콩-심천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될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이 시작되었다.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 이후 7개월 만에 개성공단 물류운반 등을 위한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실현되었다. 현재 남북간의 물자운반은 약 96%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어 높은 물류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에 따라 철도 물류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류수송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08년 내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열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문산-판문역-개성을 잇는 통근열차 운행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북한측 근로자 뿐만 아니라 우리측 근로자들도 열차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통관절차 간소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제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북측 세관원이 일일이 입주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화물검사를 하는 현행 통관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초로 한 선별검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빠른 시일 안에 통관절차를 선별검사방식을 통해 간소화하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며, 남북 세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간 합의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내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제출서류 축소와 함께 차량 및 물자의 통행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제출하던 ‘휴대품신고서’를 통일부와 관세청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생략하였다. 차량의 입·출경 시에 제출하던 출·도착 보고서를 폐지하였으며, 물자 반출입시 제출하던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등을 전산을 통한 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신고로 대체하였다.

나. 노무관리

(1) 직무교육

입주기업은 북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인력 공급을 신청하고, 총국은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공급하고 있다. 기업은 총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기술교육센터 행정동(좌) 및 교육동(우) 전경

대상으로 기능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북한 인력 및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기술교육센터는 대지면적 23,142㎡, 건축면적 10,909㎡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22개의 강의 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동시 교육 가능인원은 약 700여 명이며, 연간 4,000명의 기능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

(2) 근로조건

개성공단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실시한다. 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입주기업은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의 명절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는 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중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

월 노동보수 지불계산서																																																																																																																																																																																																																																																																																																																																																																																																																																																																																																																																																																																																																																																																																																																																																																																																																																																																																																																																																																																																																																																																																																																																																																																																																																																																																																																																																																																																													
연도	월	생년월일	부서	직종	직명	월보	일보	시간	로동시간							로임				가급	장려금, 상금	월 노동보수계	수표																																																																																																																																																																																																																																																																																																																																																																																																																																																																																																																																																																																																																																																																																																																																																																																																																																																																																																																																																																																																																																																																																																																																																																																																																																																																																																																																																																																						
									가동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기본					초과	공제	로임계																																																																																																																																																																																																																																																																																																																																																																																																																																																																																																																																																																																																																																																																																																																																																																																																																																																																																																																																																																																																																																																																																																																																																																																																																																																																																																																																																																																			
											150%	200%																																																																																																																																																																																																																																																																																																																																																																																																																																																																																																																																																																																																																																																																																																																																																																																																																																																																																																																																																																																																																																																																																																																																																																																																																																																																																																																																																																																																	

복측 근로자는 노동보수 지불계산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월 노임액을 확인함

상할 수 없다. 2003년 9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정한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였는데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합의에 의하여 2007년 8월 1일부로 52.5달러로 인상되었다. 기업들은 노동보수와 별개로 월 노임총액의 15%를 익월 10일까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노동보수 중 약 30% 정도를 사회문화시책 기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불받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식시간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의료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금융지원 및 손실보조제도

(1) 금융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말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1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원이 대출되었다.

그러다가 입주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금 대출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경제 논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2006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로 본단지 2차 입주기업부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이 소요자금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기업당 보증지원의 규모는 총 투자예정금액의 70% 이하, 국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 이하로 하며, 초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이 보증지원 대상이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담당하며, 보증업무 처리방식은 국내 기업과 동등하다.

(2) 손실보조제도

북한 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중단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종의 손해보험과 유사한 손실보조제도는 기금과 기업간 손실보조약정 체결에 따라 시행되며, 약정금액은 기업당 50억원 이내, 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약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약정금액의 0.375%(대기업은 약정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보조수수료(일종의 보험료)로 매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약정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결정하고, 기간만료 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라. 원산지문제 해결 및 판로확보

개성공단이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고 입주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11월 타결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요한 선례로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5년 9월 1일 발효한 한국-EFTA(스위스, 노

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국-ASEAN FTA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2일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 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했다. 2007년에는 「2007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28~3.3, 서울), 「프리뷰인 상하이」(3.26~29, 중국), 「2007 국제유통산업전」(5.23~26, 서울) 및 「프리뷰인 서울」(9.4~6, 서울), 「2007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11.29~12.1, 부산) 등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 활동을 펼쳤다.

마. 전략물자관리

정부는 다자간 국제협약인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WA)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개성공단으로의 물자 반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을 제정하여 전략물자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에 따라 입주기업은 전략물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기업의 관리담당자는 회사별

전략물자 관리대장을 비치해 수시로 전략물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과는 별도로 전략물자 반출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4일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는 첫째,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반출품의 기술 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여부 등을 반출 승인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전략물자 반출 이후 10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수출통제품목의 반출과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EAR 규정 준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출관리규정상 수출통제품목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통일부 고시인 「개성공업지구반출컴퓨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정기적 점검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컴퓨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제3절 남북간 수송체계

1. 남북연결 철도·도로 사업

가.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

2006년 예정되었던 남북열차 시험운행(5.25)은 행사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통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통과하는 우리측 열차



제진역에 도착하는 북한측 열차

보로 돌연 취소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5)와 핵실험('06.10.9)으로 남북간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은 지연되었다.

2007년 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 평양)에서 상반기 내에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4.22, 평양)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2007년 5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07.5.8~11, 판문점)에서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였다.

당초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1차 회의('07.4.27~4.28, 개성)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및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열차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가 취해지면 다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보장조치 이후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2차 회의('07.5.14, 개성)에서 열차시험운행의 명칭 및 날짜,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시험운행 시간과 구간, 시험운행 방식, 시험운행 행사, 시험운행 일정 등이 포함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5월 17일 역사적인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였다. 경의선은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우리측 열차가,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으로 북한측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운행됨으로써 분단 이후 60여년 만에 남북의 기차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나. 남북철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 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0~21, 개성)을 개최하여 남과 북의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5년 8월 1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철도 운영을 위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1, 개성)에서 화물열차 운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화물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처리방법과 남북열차운행사무소 구성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북한 판문역에 남북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남북화물열차 개통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한 이후,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07.11.20~21, 개성)에서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11.27~29, 평양)에서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1차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07.12.1, 개성)에서 열차운행에 대한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매일 1회,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하여 오전 9시에 남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측 판문역을 출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35차 군사실무회담('07.12.5, 판문점)에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화물컨테이너 상차



남북 화물열차 개통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 남과 북은 북한 판문역에서 화물열차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하였다. 남북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한달 간 28회(편도 기준) 운행하면서 총 219.5톤의 철도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180톤,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39.5톤이었으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와 대북 식량지원 물자를 수송하였다.

라.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신의주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및 2008 베이징올림픽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철길보수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실무접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성-신의주 구간(412km) 철도 개보수를 위하여 남과 북의 철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로 이동하면서 선로 전반과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을 조사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1차 조사결과와 북측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여 2차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과 노반 설계를 거

쳐 개성-신의주간 개보수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총리 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8~29, 개성)에서 2008년 중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완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년 2월 예정)에서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남과 북의 도로분야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개성-평양 고속도로 포장분야와 구조물 분야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포장·교량·터널 등 세부 조사 대상 구간을 선정하였고,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26명이 참가한 제2차 현지조사('07.12.21~27)에서는 구간별(개성→사리원, 사리원→평양), 분야별(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등)로 남북 공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차량 및 검사 기재를 활용한 점검과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의 교량, 터널, 포장, 사면 및 배수 등에 대한 세부조사도 병행하였다.



개성-신의주 철도 현장조사



포장 지지력 측정



교량 상부 점검

2. 해운 및 항공협력

가. 해운협력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와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홍남, 청진, 나진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4월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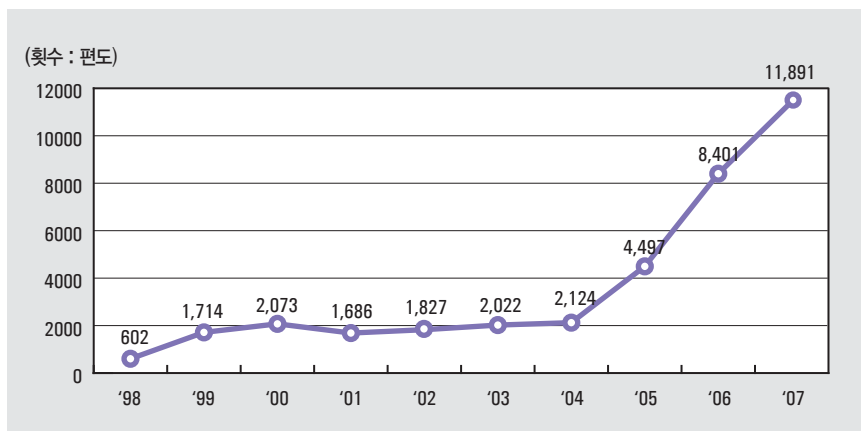
2007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1,891회로 전년대비 41.5% 증가하였다. 이 중 우리측 선박의 북한으로의 운항은 11,682회로 전년대비 39.7% 증가하였고, 북한 선박의 우리측으로의 운항은 209회로 전년대비 63.3% 증가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05.8) 이후 2007년 12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534회 운항하였다. 이 중 남한-북한 항구간 운항은 260회, 북한-북한 항구간 운항(예: 서해 남포 ↔ 동해 청진)은 274회였다.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 해상항로대를 이용하는 선박의 운항 허가 및 이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

며,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통보하는 등 쌍방의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선 및 해운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12.25~28, 부산)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및 통항질서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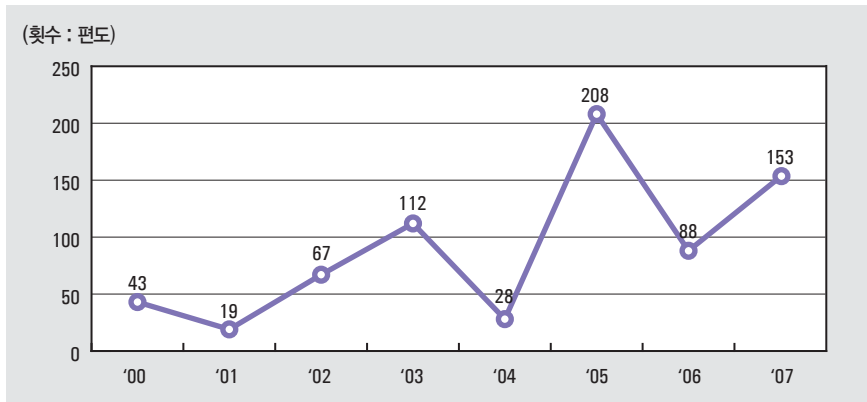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나. 항공협력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남북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회담 등 각종 계기시 부정기적으로 운행되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 하반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간 회담과 민간행사가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2006년 88회 대비 73.9% 증가한 153회로 늘어났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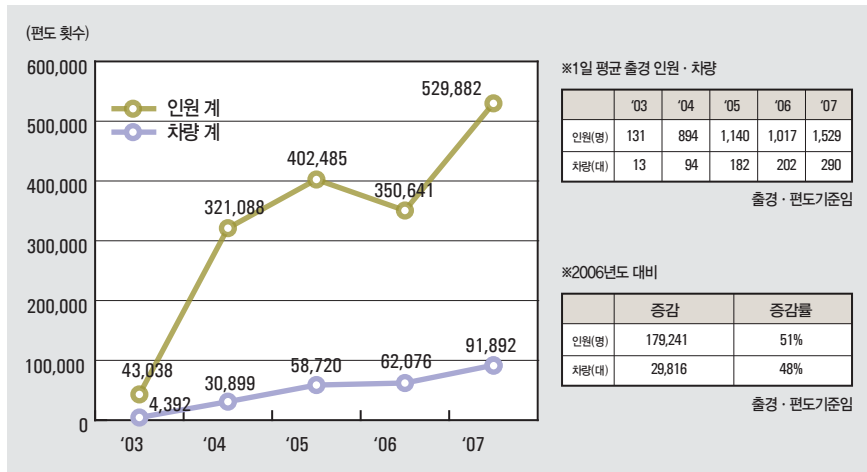
3. 육로 출입시설 및 통행체계

가. 육로 출입시설 확충

2007년 육로를 통한 방북인원 및 통행차량은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대외환경 개선, 남북관계 진전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선 도로를 이용한 방북인원은 총 529,882명으로 2006년 350,641명 대비 51%가 증가하였다. 이 중 144,971명은 경의선 도로를 통해, 384,911명은 동해선 도로를 통해 북한을 다녀왔다. 육로를 통한 방북차량은 91,892대로 2006년도 62,076대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이 중 71,857대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20,035대는 동해선 육로를 통해 북한을 왕래하였다.

이처럼 확대되는 남북간 교류협력에 맞추어 정부는 출입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2005년, 2006년에 경의선과 동해선에 각각 철도 및 도로의 출입시설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일원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경의선 물류센터(일명 도라산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경의선 물류센터에는 컨테이너야드, 화물창고, 동·식물 검역시설, 인

방북인원 및 통행차량의 육로 출입 추이



입철도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화물통관, 물류기지, 동식물 검역, 철도차량 정비 등이 가능하다. 앞으로 경의선 물류센터는 화물통관장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관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그리고 동해선 물류센터는 200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해선 물류센터도 경의선 물류센터와 함께 남북한 교역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물류 기반시설로 역할을 할 것이다.



경의선(도라산)물류센터 준공식

출입시설 현황

구분		건물 연면적	공사기간	부지면적/동수
경의선 (도라산)	철도출입시설	11,048㎡	'04.9 ~ '06.4	442,015㎡ (36개동)
	도로출입시설	16,957㎡	'04.9 ~ '06.5	
	물류센터	19,227㎡	'05.10 ~ '07.12	
동해선 (고성)	철도출입시설	6,706㎡	'04.9 ~ '06.4	294,933㎡ (15개동)
	도로출입시설	14,055㎡	'04.9 ~ '06.5	
	물류센터	9,474㎡	'06.12 ~ '09.6(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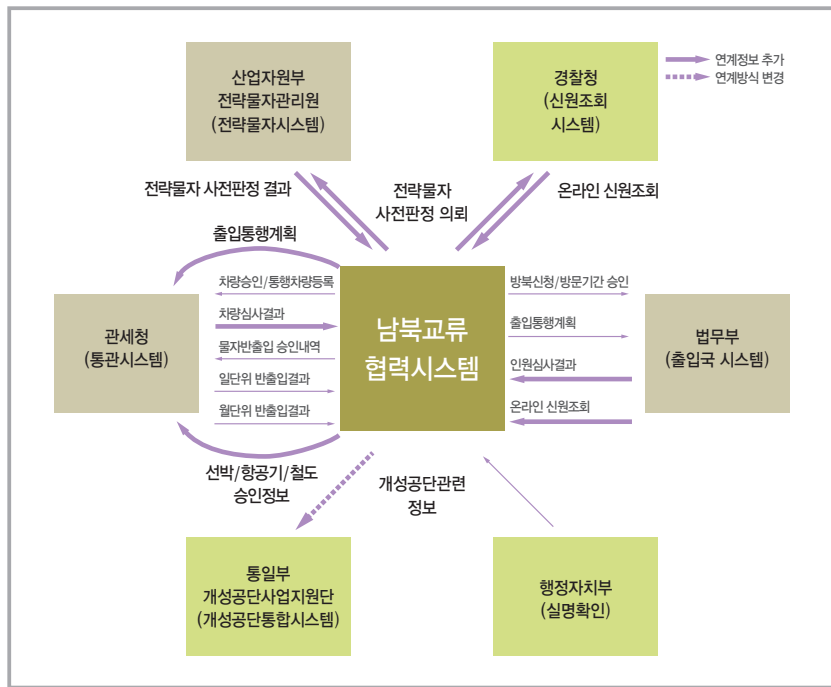
나. 육로 통행체계 개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법무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였고, 전자식 방문증과 차량운행승인증을 도입하여 전자출입체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간 출입통행을 위한 법무부의 출입심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출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간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심사결과를 즉시 온라인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심사가 가능해졌으며 민원서류도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방문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기존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였으나 지금은 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확인 처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연계망



앞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전자통행시스템 운용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스마트카드형 방문증과 여권형 방문증(e-passport)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카드형 방문증은 유효기간이 5년인 방문증으로 신용카드와 같은 크기로 내부에 72KB 용량의 정보저장 칩을 사용하여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자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문인식 등 무인자동심사시스템 도입에도 대비한 것으로 수시 방북하는 협력사업자 등이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권형 방문증은 표지에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브랜드로 통행·통관·통일의 관문을 상징하는 「통통」을 삽입하였고, 내부에 RFID 태그(1KB)를 사용, 인적사항 등을 전자 인식하도록 제작했다. 회담 및 인도인수 참여인원처럼 연 2~3회 정도 방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차량운행승인증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성공단 출입차량 운행승인

증과 같은 형식의 스마트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방북하는 운전자는 차량전면 중앙에 차량운행승인증을 부착하고 남북출입사무소 차량 출입심사대에 진입하게 되면, 전자출입시스템(RFID)으로 차량 정보를 자동 인식하고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 12월 3일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차량운행 승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남북간 출입통행시간 연장 등에 따라 경의선 및 동해선 지역 남북관리구역 가운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경비·안전장치 보강 설치작업을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였다. CCTV, 모니터, 비상전화를 교체·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계 및 안전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차량운행 승인증



제4절 남북관광협력

1. 금강산 관광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 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전항을 향하여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9월부터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해로 관광은 중단되었다. 2002년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금강산 관광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정부의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현대아산의 자구책 마련 등으로 2004년부터 정상화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는 북핵실험의 여파로 관광객의 큰 증가는 없었으나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개시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 6월 들어서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누적 관광객이 150만명을 돌파하였다. 10월 한달 동안의 관광객이 1998년 이후 최고치인 63,000여 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7년 한해 동안 34만 5천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구분	'98.11~12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계
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734,696

※ 이산가족행사 및 남북공동행사 등을 위한 금강산지역 방북인원은 제외

2007년 6월 1일부터 2박3일 일정의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외금강 지역 위주의 관광코스가 내금강까지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2006년에 외금강호텔, 농협 금강산지점 개장에 이어, 2007년 5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금강산 면세점이 개장되었고 11월에는 (주)한국엘피가스의 가스충전소가 준공되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난방·온수 사용을 위한 무공해 연료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강산에 골프장도 만들어졌다. (주)에머슨 퍼시픽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골프·스파 리조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7년 10월 시범경기를 개최하였다. 골프장은 2008년 상반기 중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불교사찰인 신계사 복원공사를 4년여 만에 마무리하고 2007년 10월 13일 낙성식을 개최하였다.

현대아산은 2007년 12월 북한측 관계자들과 비로봉 답사를 실시하였다. 비로봉은 그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구간으로 이번 답사를 통해 비로봉 관광계획이 구체화되고 빠르면 2008년 상반기 중 비로봉 관광이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아산은 북한측과 함께 「금강산 관광지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왔으며, 10월에 최종안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금강산개발 종합계획은 북한측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강산 개발 종합계획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2조 1,244억원(22억



내금강 관광사진

6천만 달러)을 투자(관광시설 1조3,997억원, 기반시설 7,247억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통천군, 원산시 일원에 10개의 관광특화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2007년 12월에 개성에서 북한측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와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승인·등록 등 행정지원 업무 △소방·안전 등 시설물 관리 △출입절차·수속, 인프라 건설지원 등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지원업무와 금강산 특구의 체계적 개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 개성 관광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개성 시범관광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8.26, 9.2, 9.7) 1,600명이 고려 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의 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들어서 북한 아태는 현대아산과의 내부갈등을 이유로 현대 아산과 맺은 관광사업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 존중'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북한측을 설득함으로써, 현대 아산과 북한 아태는 2007년 11월 3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일 300여 명 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며,



개성관광 개시



선죽교 관람

2007년 12월 말까지 7,400여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다. 사업자인 현대는 관광객의 증가추세 등 사업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1박2일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개·보수 투자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백두산 관광

2005년 7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북한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백두산 관광실시에 합의하고, 관광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을 위한 자재 제공, 현지 기술협력 및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백두산 현지 기술협력과 시범관광은 지연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백두산간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 실시에 합의하면서 다시 백두산 관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 3일 현대 아산과 북한측 아태는 2008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 실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및 통일부, 문광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백두산 현지에 대한 사전답사(11.27~12.1)를 실시하고 백두산 지구의 관광자원 현황 및 관광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삼지연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활주로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제5절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1. 추진경위

2005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7.9~7.12, 서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한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10.28, 개성)를 비롯하여 실무급 위원접촉 등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방식과 지하자원 개발의 구체적 협력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후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6.3~6.6, 제주)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 여건이 조성되는 때에 합의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부터 우리측이 북한에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한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그 대가를 상환(당해년도 3% 상환, 잔여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발효되지 못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집중되면서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재개되면서 2007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4.18~22, 평양)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은 각각 이행기구(우리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측: 명지총회사)를 지정하고, 세부합의서 채택을 위해 이행기구간에 2차례의 실무협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제2차 이행기구간 실무협의(7.5~7, 개성)에서 우리측은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39품목, 신발 49품목, 비누 7품목)를 2007년 11월 말까지 북한측에 제공하고, 4회에 걸쳐 경공업 현장을 방문, 기

술지원하며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3차례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2. 추진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 제공과 관련하여 전체 미화 8,000만 달러분 중 87%(6,993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였다. 당초 2007년 11월 말까지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규격수정 협의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약 224만 달러)분 추가제공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3차례의 기술지원(1차: 8.7~11, 2차: 10.23~27, 3차: 12.3~8)을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10여 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북한의 생산공장(평양방직공장, 평양편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보통강신발공장 등)을 방문하고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측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겪는 문제점 등을 협의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해 3차례(1차: 7.28~8.18, 2차: 10.20~11.7, 3차: 12.20~26)의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현지공동조사를 위해 15~17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에



대흥 마그네사이트 노천광산 전경



검덕, 대흥, 룡양 광산 채취광물 샘플



보통강신발공장 신발 생산현장



평양화장품공장 비누 생산현장

대한 현장조사와 주변의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고 남북 전문가간 분야별 협의도 실시하였다.

정부는 3차례 현지 공동조사결과를 토대로 3개 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투자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국내 투자희망업체를 모집하고, 투자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2007년도 상환분(8,000만 달러의 3%, 240만 달러)을 2차에 걸쳐('07.12.14, '08.1.4) 아연과 약 1,000톤으로 상환했다.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대가에 대한 북한측의 상환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차관 제공 후 처음으로 북한측이 상환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6절 기타 남북경협

1. 조선업 협력

남북조선협력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남북간 조선협력은 우리 조선업계의 호

향으로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날로 악화되는 해외투자 여건에서 벗어나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고, 남포시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서울)에서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적극 협력하고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에 실시하기로 하며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된 필요한 제도적 장치(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07.12.25~28, 부산)를 통해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투자환경의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논의하고, 2008년 1/4분기에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며, 3월 중에 차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담기간 중 회담 참가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선박 건조 과정을 시찰하였다.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북조선협력 대상 지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현지조사에서는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조선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안변과 남포지역을 방문하였다. 조선업체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 SLS, 대한조선, 씨앤(C&)중공업과 기자재, 블록 제작업체 등이 참여하였다. 현지조사단은 북한측이 제시한 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지형, 기상조건, 배후시설 등 입지여건과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였다. 남포지역에서는 서해갯문 밖의 황남 서해리 일원과 갯문 안의 영남배수리공장 및 배후부지를 실사하였고, 안변지역에서는 월랑리 일원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 조선 관계자와 조선협력단지 건설·가동을 위해 필요한 투자환경의 법적·제도적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병행하였다. 제2차 현지조사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었다. 2차 합동조사단은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협력단지의 부지여건 외 전력, 용수, 인력 등 산업 인프라 현황을 정밀 조사하였다.

2. 수산업 협력

남북간 수산업협력은 남북 어민들의 소득향상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005년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05.7.25~27, 개성)에서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이용, 제3국 불법 조업 어선 출입통제 협력, 우량품종 공동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진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수산업협력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북한측이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 등 군사적 문제 선결을 주장함에 따라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7년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07.4.18~22, 평양) 수산업협력 실무접촉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별도로 협의,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 내에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11.27~29, 평양)에서 남과 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위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추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서울)에서 남과 북은 2005년 제1차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한측 동해의 일정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07.12.14~15, 개성)에서는 2008년 중에 북한측 동해수역의 일정 어장에서 우리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협력대상 수역 선정, 입어로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

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을 협의, 확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농업 협력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기존의 일회성 대북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남북간 농업협력을 논의할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4, 서울)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8월 1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시범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분야 지원 및 협력,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및 양묘장 건설과 병충해 방제협력 등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속적인 농업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와 핵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당국간 사업에 앞서 민간 전문단체(통일농수산사업단)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5년부터 금강산 지역에서 삼일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남한의 농자재·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을 결합한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측의 우수 벼종자와 다수확 발작물 종자로 시범 재배한 결과 농작물 생산량이 20~30%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금강산지역에 금천리 협동농장을 설치하고, 2007년에는 개성지역에까지 공동영농사업을 확대(금강산 지역: 2,500ha, 개성지역: 506ha)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성 및 자생력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수산 협력을 위한 당국간 협의창구를 마련하였다.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

의('07.12.14~15, 개성)에서는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검역체계 확립 및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축산분야 협력을 위해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개최(11.5, 12.18)하여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인근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 규모로 양돈장을 건설하는 양돈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차관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양돈 전문가들과 함께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돈장 예정부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여 북측 양돈전문가와 함께 양돈시설 설계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1990년대 후반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수해(재산피해 9천억원, 사망 116명)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999년 8월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9.1,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고, 김용순 특사 방한시('00.9.14)에는 2000년 내 남북 공동조사 실시 및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04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3.2~3.5, 서울)에서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04.4.10, 개성)에서는 단독조사 항목 및 조사용 기자재 대북 제공, 북한측의 사전자료 목록 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에 현지조사용 기자재 33종을 제공하였다. 2005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7.9~12, 서울)에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 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동년 8월 10일에 단독조사 결과를 북한측에 전달하였고 북한측은 12월 23일에 우리측 경험협의사무소를 통해 임진강유역 상류지역의 단독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다. 2006년 제1차 임진

강 수해방지실무접촉(6.26~27, 개성)에서는 공동조사문제, 홍수예보체계구축 및 산림복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5) 및 핵실험('06.10.9)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해 우리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임진강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해 북한측과 6차례에 걸쳐 문서교환방식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임진강 홍수예보체계 구축, 황폐지 산림복구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발효절차와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다가 의견접근을 보았다. 우리측은 하루속히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합의서를 타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경추위 등 상위회담이 개최된 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어서 다시 합의서 채택이 지연되었다.

그 후 우리측은 「2007 남북정상회담」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이어 개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07.12.28~29, 개성)에서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른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서명·교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별도의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5.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사업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2006년 10월 북핵실험으로 주춤하였으나 2007년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북사업 재개 및 신규 투자 상담이 늘어났고 경협사업자의 방북도 늘어났다. 방북 횟수의 경우 1월 이후 매월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경협 관련 방북자 수는 2006년에 비해 30% 증가한 2,241명을 기록하였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승인 건수

는 1995년 대우의 남포공단 협력사업 승인 이후 총 51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승인이 취소되어 2007년 12월 말 현재 48건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2007년에 승인 받은 협력사업은 한국엘피가스(6.25), 두담(7.23), 개성관광(12.4), 아스트라(12.12), 한국체인(12.31),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12.31) 등 6건이다. 이들 48개 협력사업의 투자액은 승인기준으로 5억 7,883만 달러이고 실제 투자액은 2007년 말 기준 3억 7,853만 달러이다. 투자된 금액을 분야별로 보면 금강산관광에 약 3억 달러, 평양 등 내륙지역의 제조·서비스업에 8천만 달러, IT분야에 207만 달러 등이다.

주요 경제협력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태창은 2007년 1월 회사명칭을 일경으로 변경하고 금강산 샘물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생수를 육로로 반입하여 국내에 시판하였다. 2007년에는 추가로 3호정을 개발하여 월간 생산능력을 2,000톤으로 확대하고 생수 3,000톤을 반입하였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평양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한 이후 2007년 12월까지 총 1,075대의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였고, 이 중 948대를 북한에 판매하였다. 현재 조립생산 외에 자동차 수리정비, A/S 부품판매, 휘발유 판매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2007년 4월부터 정촌 흑연광산의 전기공급을 정상화하고 본격 가동하여 흑연정광 750톤을 생산하고, 이 중 인상흑연 550톤을 국내에 반입하였다. 안동대마방직은 5월부터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공장 4개동의 외관공사와 전기시설 공사를 마치고 육로로 설비를 반출하여 직기를 안장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태림산업은 2007년 6월 석산 추가개발에 따라 투자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변경승인(투자금액 증액, 295만불→500만불, 투자형태 합작→합영)을 받았다. 이후 12월에 장풍석산 개발 준공식을 가졌으며, 2007년에 경계석 3천개, 사고석 15만개, 자연석 4톤을 반입하였다. 대동무역은 북한측과 상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으로 판매용 500ml 페트병 강서청산수 136,200개를 국내에 반입하였다. 제일유통은 개풍군 묘목장을 관리하면서 과수재배(대동강구역)와 축산(평양 중화군) 분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엘피가스는 11월 30일 금강산관광지구에 가스 충전시설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IT분야는 초기 투자비가 적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도 정보기술 습득에 관심이 많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KT, 아사달 등은 북한측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비즈닷컴은 북한측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합영회사를 중국 단둥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70개의 과제를, KT는 2004년부터 16개의 과제를 개발하였다.

일반 경제협력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대우	1995.5.17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512	512
일경	1997.5.22~2005.11.23	금강산 샘물 생산	980	980
녹십자	1997.11.14	혈전증 치료제 사업	311	201.8
(주)아자커뮤니케이션	1998.2.18	인쇄물 및 TV 광고 제작	25	0
미흥식품	1998.3.13	북한 수산물 채취·가공	47	6.4
국제옥수수재단	1998.6.18	신품종 옥수수 개발	2,160	715.5
두레마을영농조합	1998.7.27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	200	0
태영수산/LG	1998.8.28	가리비 양식생산	65	1.3
(주)코리아랜드	1998.8.28	북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60	20
백산산업	1998.8.28	버섯류 생산·수출	20.8	0
평화자동차	2000.1.7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	5,654	2,608.7
G-한신	2001.10.16	북한 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 운영	560	215.7
국양해운	2001.11.21	해상 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사업	619	118
(주)유니코텍코리아	2002.8.7	발포수지 성형사업	51.8	51.8
평화항공 여행사	2003.8.25	평양 관광	0	0
대한광업진흥공사	2003.10.4	정촌 흑연광산 개발	510	509
G-한신/경평인터내셔널	2004.3.20	식품가공공장 설립 및 가공식품 생산	240	95.2
(주)안동대마방직	2004.9.17	삼베섬유 제조	1,000	1,000
(주)서진 인터크루	2004.7.7	핸드백 등 피혁제품 제조	800	0
제일유통	2004.8.21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54.6	1.0
상하씨엠	2004.9.17	농수산물 및 토산품 가공공장 설립·운영	5	0
(주)제이유네트웍	2004.12.30	김치제조 공장설립 및 유통·판매	160	72
아이니무역	2005.6.15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15	15
(주)쓰리엔테크놀로지	2005.12.27	기계제품 생산·판매	350	0
(주)대동무역	2005.11.10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	250	250
(주)태림산업	2005.12.1	석재 가공 및 판매	500	495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제일유통	2005.12.30	나무재배 및 판매	26	23
제일유통	2005.12.30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164	14.7
제일유통	2005.12.30	소사육 생산 및 판매	30	3
현대아산	2006.6.22	남북사이 왕래되는 견본품 운송사업	11	8
(주)두담	2007.7.23	개성공단 식자재 공급 사업	50	20.9
현대아산	2007.12.4	개성 관광 사업	1,100	28
(주)아스트라	2007.12.12	무연탄 가공, 생산 및 판매	1,000	53.5
주)한국체인	2007.12.31	북측 기념품 및 농임특산물 가공, 판매	250	0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	2007.12.31	북측 인삼재배, 가공 공장 운영 등	285	0
계		35개 업체	18,066.2	8,019.5

금강산 관광지구 협력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1998.9.7	금강산 관광사업	30,286.5	22,633.0
				2,585.9 (현대아산 협력업체)
에머슨퍼시픽	2005.12.30	금강산 골프 스파 리조트 건설, 운영	7,230	4,252.7
주)한국체인	2006.5.8	금융업	500	58.6
한국엘피가스	2007.12.31	금강산 관광지구내 가스충전 및 공급사업	200	96.6
계		4개 업체	38,216.5	29,626.8

IT 협력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용역대가등
KT, 온세통신	1998.11.11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47.5		
삼성전자	2000.3.13	S/W 공동개발	554		510.3
하나비즈닷컴	2001.7.18	프로그램 공동개발	200		184
엔트랙, IKD그룹	2001.8.22	평양고려정보기술센터건립	400	170.2	
KT	2004.7.23	S/W 공동개발	129.4		127.9
에스피메디텍	2004.9.17	의료 S/W 개발	159	6.7	
알티즌하이텍	2005.9.21	CTP 인쇄기 개발	10	9.6	3.6
아사달	2006.7.5	디자인 콘텐츠 제작	32.8		11.7
경기디지털 콘텐츠진흥원	2006.8.2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1.3		1.3
계		9개 업체	1,534	186.5	838.8

취소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용역대가등
(주)훈넷	2001.12.29 승인 2004.1.19 승인 취소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20	20	
브이케이(주)	2004.9.23 승인 2006.11.1 승인 취소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	43.3		11.4
(주)스튜디오투모로우	2005.6.1 승인 2007.5.18 승인 취소	애니메이션 제작	3.8		1.0
계		3개 업체	67.1	20	